우려가 현실로… 코로나19 재유행

최근 하루 확진자 900명대로 재확산세 '뚜렷'
정부,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 대응방안 마련
4차 접종 50대·18세 이상 기저질환자로 확대

제주지역 일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하루 새 900명대로 뛰어오르며 감염 재유행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전국적인 유행 재확산으로 정부는 4차 접종 대상을 50대로 확대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새 방역·의료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1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2일 하루 동안 도내에서는 964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이날 오후 5시까지 63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24만 4677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일주일 확진자 수도 3000명 대로 올라갔다. 이날 0시 기준 최근 일주일 동안 총 352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504명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전주 대비 1877명이 증가한 수치다.

이달 들어선 4792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며 지난 6월 한 달 확진자 수인 4050명을 뛰어넘었다.

격리 중인 확진자 수는 3223명이며 이중 3187명이 재택치료를 받고 있다.

신규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도내 위중증 환자 수는 1명이다. 치명률은 0.08%를 나타내고 있다.

또 정부가 이날 발표한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 대응방안'은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대상자를 확대하고,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유지하며, 의료 대응방안을 확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의 대응방안에 따르면 4차 접종은 50대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장애인 시설·노숙인 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입소자가 추가된다.

도내 대상자는 50대 연령층 11만 5836명, 노숙인 생활시설 2개소 180명, 장애인 거주시설은 40개소 1037명이 접종 대상에 포함됐다.

접종 백신은 화이자·모더나(mRNA) 백신과 노바백스 백신이다. 당일 접종은 오는 18일부터 가능하며, 도내 보건소 누리집을 통해 제주지역 191개 위탁의료기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사전 예약 또한 18일부터 시작한다. 예약 접종은 내달 1일부터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검찰의 4·3희생자 사상 검증에 경악"

4·3도민연대 등 성명… "시대착오적 생트집"

검찰이 이미 제주4·3희생자로 결정된 이들에 대한 '사상 검증'에 나선 것과 관련 4·3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4·3도민연대는 13일 성명을 내고 "지난 12일 제주지방검찰청은 대한민국 정부 4·3위원회의 희생자 결정을 정면으로 들이받은 시대착오적인 생트집을 잡았다"며 "제주지검은 일부 희생자의 좌익 경력을 문제 시 했다. 만약 20년 전 출판된 책에 담긴 두 줄짜리 활자에 근거했다면 세기적 필화(筆禍)사건으로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4·3 당시 군법회의 수형인은 자기보호, 자기변론, 자기방어권 행사도 하지 못한 채 법적 근거도 없는 재판에 의해 형무소로 끌려갔다"며 "74년 전 이미 고인이 돼버린 이들을 또 다시 죽이려는 검찰의 희한한 발상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13일 (사)제주다크투어 역시 논평을 내고 "검찰은 4·3희생자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4·3위원회의 심사 결정을 번복할 권한이 없다"며 "재심을 희생장 검증 도구로 활용하지 말라"고 밝혔다.

송은범기자

제주 도착 티웨이항공기 화물칸서 화재경보 작동

소방당국 출동 결과 '오작동'

승객 189명을 태우고 청주공항을 이륙해 제주공항에 착륙한 티웨이항공 835편(보잉 737) 화물칸에서 화재 경고등이 켜져 소방당국이 긴급 출동했다.

13일 제주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31분쯤 제주공항에 착륙한 티웨이항공 항공기에서 화물칸 화재 경고등이 켜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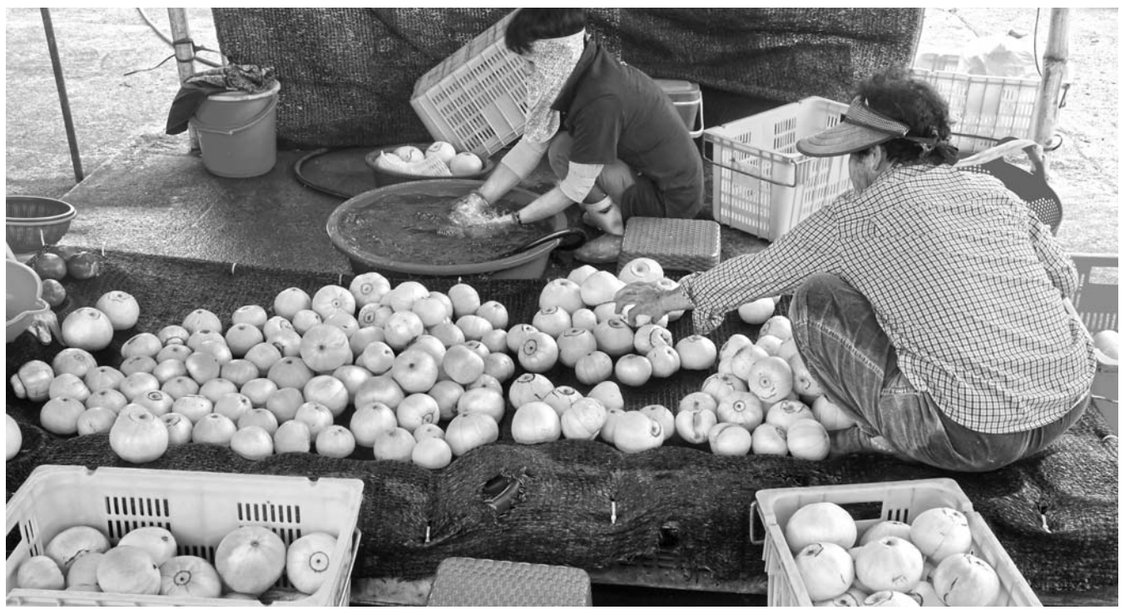
출동한 소방당국은 보조활주로에 계류된 항공기에 진입해 화재 여부를 확인했지만 경보기 오작동으로 최종 확인됐다.

해당 항공기는 이날 오전 10시44분 청주공항을 출발해 같은 날 오전 11시31분 제주공항에 도착했다.

소방당국은 "항공사 운항 통제실에서 화재 경고등 점등을 확인하고 신고했으며 현장 확인 결과 실재 화재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승객들은 모두 안전하게 비행기에서 하기했으며 별도의 승객 대피는 없었다"고 말했다.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노랗게 익은 참외 13일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진드르 도로변에서 농민들이 수확한 노지 참외를 정성스럽게 씻고 있다. 강희만기자

횡단보도 교통사고 예방 '스마트'하게

서귀포시, 인공지능 접목 위험 상황 3중 경고

전국적으로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이 12일 본격 시행된 가운데 서귀포시가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한 스마트 경고 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있다.

시는 최근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서귀포 이마트 삼거리, 외돌개 입구 교차로, 천지연폭포 입구 교차로, 동홍대림 아파트 인근 교차로 등 4곳에 인공지능을 접목한 교통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영상인식을 기반으로 실시간 차량과 보행자는 물론 킥보드, 자전거 등 모든 사물을 실시간으로 분석·인식해 이를 LED전광판, 안내 음성, 그림자 조명을 통해 위험 상황을 3중으로 경고한다. 특히 우회전 시 발생하는 사각지대로 인한 사고를 줄이고 운전 부주의,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등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서귀포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1311건이며 이로 인한 사망자는 18명, 부상자수는 2100명이다. 작년 4월 전국적으로 시행한 '안전속도 5030'의 효과로 사망자가 2020년 24명보다 6명(25.0%) 줄었다. 올해 6월말 기준 교통사고 건수는 586건이며, 이 사고로 6명이 숨지고 862명이 다쳤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변호사 살인사건 항소심 무기징역 구형

검찰, 1심 이어 어제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요청

제주지법, 내달 17일 선고공판

검찰이 1999년 제주에서 발생한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경훈 부장판사)는 13일 살인과 협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은 김모(55)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 2월 17일 1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고, 방송국 관계자를 문자 메시지로 두 차례 협박한 혐의는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바 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전(前) 유탁파 행동대원이었던 김씨는 동갑내기 조직원 A씨와 함께 1999년 11월 5일 오전 6시48분쯤 제주시 삼도2동 북초등학교 인근에 세워진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승용(당시 44세) 변호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당시 성명불상의 사주자에게서 "이승용 변호사를 혼 내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은 뒤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날 검찰은 "부검의와 국과수 분석관 등 증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가해진 공격이 계획적이라는 것이 증명됐다"며 "특히 피해자의 상처와 현장 혈흔, 흉기 등에 비춰보면 애초부터 상해가 아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은커녕 사주한 사람도 밝히지 않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아울러 검찰은 방송국 관계자를 협박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따로 구형했다.

반면 김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원심에서부터 이번 사건을 A씨에게 들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며 "특히 법정에 출석한 증인들은 피해자의 상처나 혈흔만 보고 살인의 의도를 단정할 수 없다고 진술했다. 즉 검찰의 주장하는 살인의 고의는 증명되지 않은 것"고 반박했다.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방송국 관계자가 유튜브 방송에서 자신을 비아냥 거리는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며 "협박 혐의로 구속된 후 가족들이 충격을 받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17일 오전 10시에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만감류 매달기는 다인귤고리!

매달기작업 일손을 줄이고 싶으신 분!
더울 때 작업을 줄이고 싶으신 분!
한번 매달면 몇 년이 속편한,
다인'귤고리'가 있습니다!

귤고리의 장점

1. 실제 매달기 작업의 시간이 확 줄어듬→2년 안에 인건비 절감액으로 자재구입비 회수가능
2. 귤고리 작업세트로 한 번만 던져 설치하면, 3년 이상 철거 없이 매달기 고리로 계속 활용 가능.
3. 귤고리 작업세트는 언제든 미리 설치 가능. 즉, 더워지기 전, 덜 바쁠 때, 인력 쉽게 구할 수 있을 때 언제든 미리 작업해 둘 수 있음.
4. 고정판을 이용하여 높이조절이 쉬움.
5. 수확 후 회수도 간편.

귤고리 작업세트 구성

귤고리+고정판+안파밴드를 셋트로 구입해 사용합니다. **나무 1개에 4-6세트 사용됩니다.**
귤고리에 밴드끈의 한쪽을 묶고, 반대쪽에 고정판을 묶은 후 설치해 매달기 고리로 활용합니다.

DA IN 다인산업(주) 054-652-3725 www.dainfine.com 제주 각 지역 농협에 절찬 판매중

하하농법으로 대박나는 농사를!!

하하농법 이달(7월)의 농사 메모 하하농법

하하농법이란 희토류의 H와 아미노산의A의 융합으로 21세기 최첨단 농법을 말한다

■ 키 위
○ **수확 80일전 :** 건물 중 향상 및 꼭지 마름병(과경지 시들음병) 예방을 위해 하이휴믹(천연가리) 1포 + 액시덤 2통 + 뿌리원 2통 100말 1,000평(3,300㎡)관주
○ **낙엽 방지를 위해 :** 일조부족 및 장마로 인한 낙엽예방은 해피한 그린 1병 50말 15일 간격 2회 엽면 시비(농약 혼용가능)
○ 열대야(21시~새벽 5시)때 온도가 25℃ 이상이 되면 오후 7시 이후1,000평(3,300㎡) 기준 20~30분 관수해 줄것

■ 만감류(레드향 · 천혜향 · 한라봉 등)
○ 다이센 + 응애(차먼지응애)약 살포해 줄것
○ 레드향에 붕소 엽면시비(6월에 엽면 시비 못한 농가) : 500g 50말 엽면시비
○ 1차 당도 상승시기이므로 해피한 그린1병 + 글루칼 1포 25말 엽면시비(7일간격 2~3회, 농약 혼용가능)
○ 칼슘제(글루칼)살포 : 레드향 및 천혜향은 한달에 1번 한라봉은 15일에 1번 엽면시비
○ 열대야(21시~새벽 5시)때 온도가 25℃ 이상이 되면 오후 7시 이후1,000평(3,300㎡) 기준 20~30분 관수해 줄것

■ 더 덕
○ 비대를 위해 부스트팜(미생물)1통+뿌리원(해조축추물)1통100말희석 1,000평(3,300㎡) 한달간격 3-4회 관주

(주)포트라 제주지사

(주)포트라 제주지사 제주지사장 부 영 인 H·P 010-2633-5349